# 비지도학습(차원축소)

홍익 대학교 Hyun-Sun Ryu

## 차원축소 실습

## 차원축소 실습

# Airline passenger satisfaction data (항공사 고객 만족도 데이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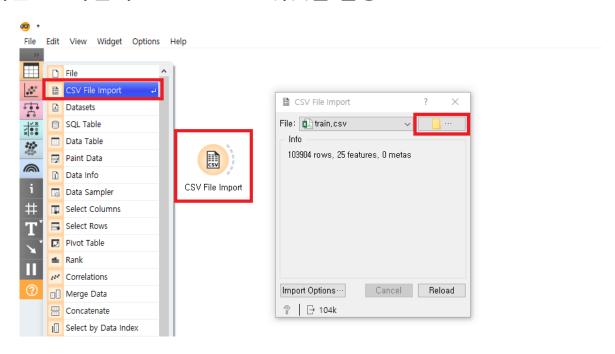
https://www.kaggle.com/datasets/teejmahal20/airline-passenger-satisfac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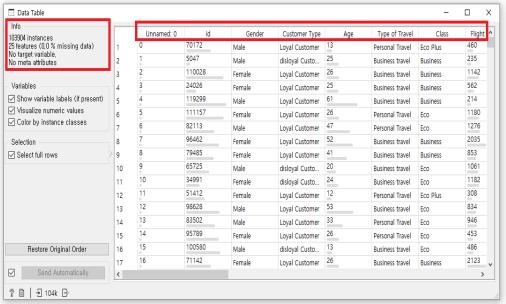
-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'Airline passenger satisfaction'
- 해당 데이터세트는 비행기 승객의 만족도 조사를 나타낸 데이터

- 각 승객별 '만족' 혹은 '불만족' 결론에 가장 연관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데이터 활용의 목표
- 이번 데이터의 경우 우리가 실습한 예제와는 달리 많은 feature값이 있으므로 차원축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
- feature값이 많을수록 불필요한 데이터도 많을 뿐더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
  있어 차원축소-주성분 분석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함.
- 기존 데이터의 70%를 훈련데이터로, 30%를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30%의 승객의 만족도를 예측
- 예측값에서 각 승객이 만족/불만족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/불만족 했는지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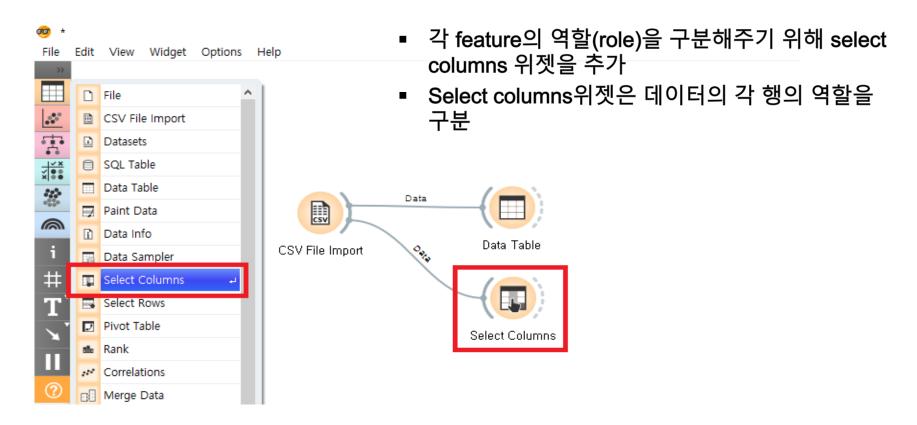
- 캐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불러옴
- 해당 데이터는 csv파일이므로 csv data 위젯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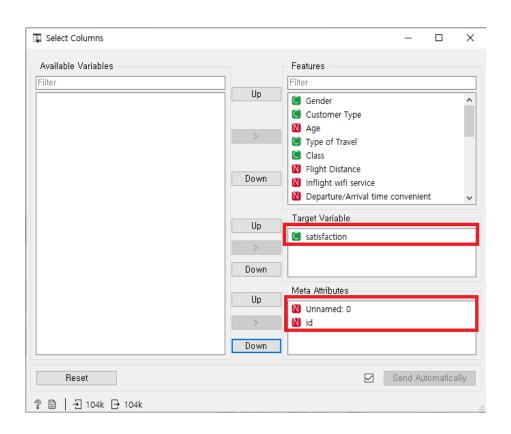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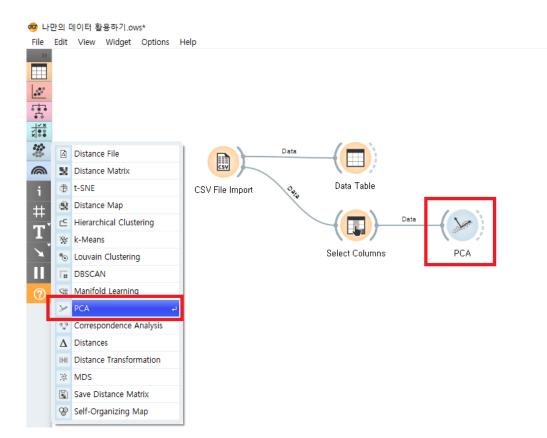


- Data table 위젯을 연결하여 해당 데 이터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파악
- 총 103,904명의 승객에 대한 데이터 가 있으며 25개의 feature값이 있음
- 25개의 feature중 하나는 satisfaction 즉 만족도이므로 24개의 feature가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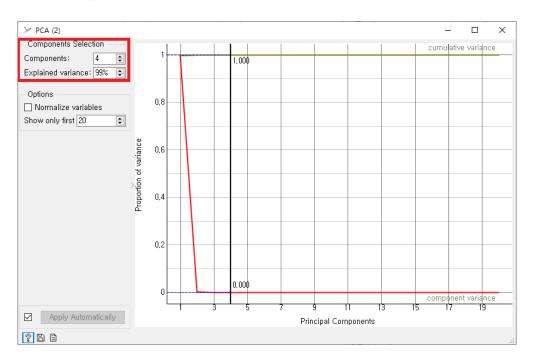


- Select columns위젯을 실행하여 각 행의 역할을 구분
- 'Unnamed:0'은 순번을, 'id'는 승객의 identification을 나타내므로 meta로 분류
- 'satisfaction'은 승객의 만족도를 나타 내므로 target variable로 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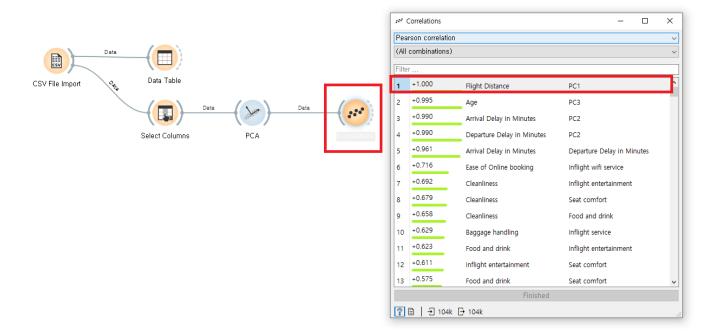


- 24개의 feature값을 토대로 예측을 한다면 각 feature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
-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성분 분석을 함
- 왼쪽 unsupervised learning 메뉴에 서 PCA를 추가하여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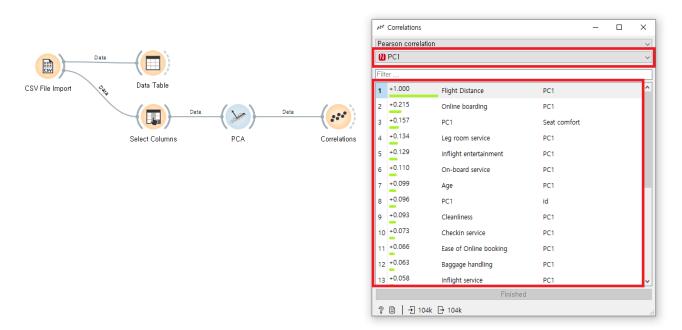
- PCA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차원으로 축소
- 4개의 주성분(PC1~PC4) 설정을 하니 비율이 99%로 설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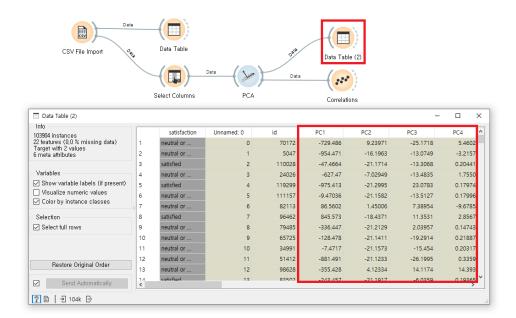
- 각 주성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s 위젯을 연결
- 대표적으로 PC1의 경우 기존 'Flight Distance' 와 상관관계가 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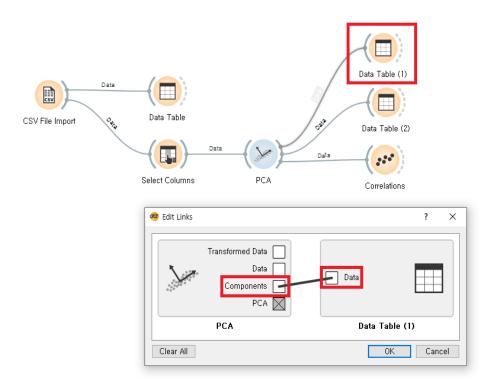
- 각 주성분의 가중치만을 보고싶다면 all combinations 가 아닌 해당 feature를 설정
- PC1만을 설정한 결과 PC1에 영향을 주는 각 feature들의 상관계수가 나타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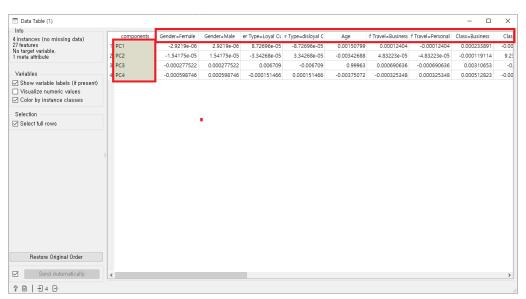
- 차원축소를 통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data table 위젯을 추가하여 확인
- 각 instance가 어떤 PC와 양/음의 상관관계인지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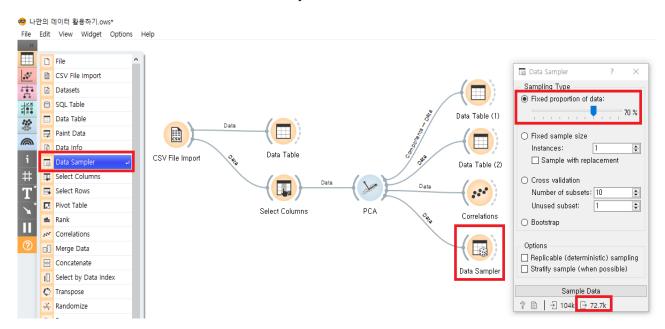
- 각 PC가 feature값과 어떤 상관관계가 파악하기 위해 data table위젯을 추가
- 이때 PCA와 data table사이의 링크는 components to data로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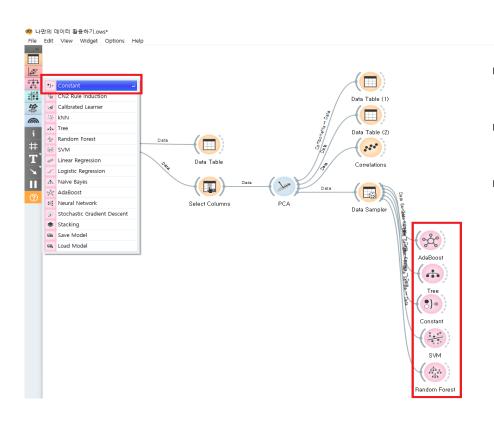


- Data table 위젯을 활성화하여 PC와 feature간의 상관관계를 파악
- PC별로 상관관계가 큰 feature를 확인
- 그 값이 양(+)의 값이며 클 수록 상관관계가 크며 그 값이 음(-)이며 클 수록 관련이 없이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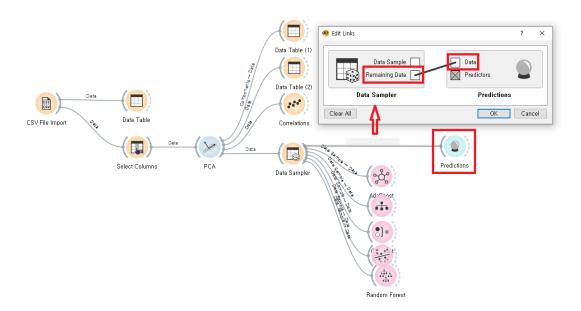
- 승객들의 선호도에 따른 예측 모델을 만듬
- 예측을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가 있어야 함
- 예측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data sampler 위젯을 활용하며 70%비율을 설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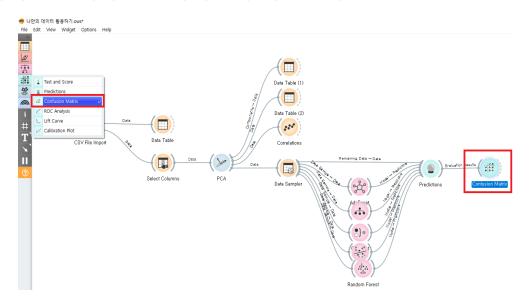


-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학습 모델을 만들 도록 함
- 이번 활동에서 활용할 모델은 AdaBoost, Tree, Constant, SVM, Random Forest임
- 연결을 통해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각 모 델은 왼쪽 메뉴 Prediction에서 끌어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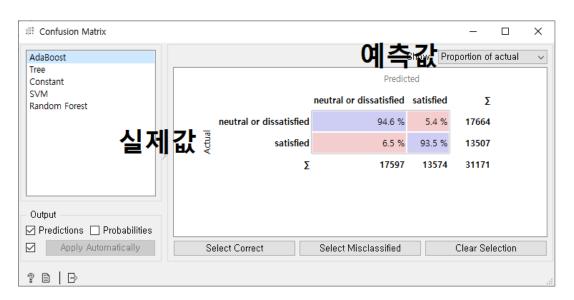
- 학습한 모델을 토대로 예측을 하도록 함
- 70%의 샘플데이터로 훈련을 시켜 학습을 하고 30%의 데이터로 예측
- Predictions 위젯을 추가하여 연결하고 위젯사이의 연결을 remaining data to data로 변경



- 각 모델별로 Predictions 위젯에 연결하여 예측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Confusion Matrix 위젯을 추가
- Confusion Matrix는 평가 결과에서 생성된 혼동 행렬을 표시하는 위젯
- 실제값은 어떠했고 예측값은 어떠한지 비교할 수 있음



- Adaboost를 예로 들면 실제로 neutral or dissatisfied였는데 test data로 예측한 결과 neutral or dissatisfied라고 예측한 비율은 94.6%. 반면 satisfied라고 예측한 비율은 5.4%.
- 실제 조사 결과 Satisfied였는데 test data로 예측한 결과 neutral or dissatisfied 라고 예측 한 비율은 6.5%. 반면 satisfied 라고 예측한 비율은 93.5%.



- 차원 축소 과정을 통해 뽑아낸 주성분을 가지고 해당 승객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해석할 수 있음
- 다만 주성분의 의미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각각의 개인에 대한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- 데이터 샘플을 구성하지 않고 raw data를 활용하여 해당 승객들이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지 확인
- 특히 만족도가 낮게 나온 승객 instance를 조사하여 –값이 큰 PC를 알아내고 이를 위해 어떤 feature를 보완 해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음

## 질문 있나요?

hsryu13@hongik.ac.kr